

Coaching

● 2024 SUMMER Vol.49

제21회
대한민국코칭컨퍼런스 발대식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

제2회 코칭, 북페어_너와 나의 행복 코칭
홈페이지 리뉴얼과 슬기로운 활용법
'나는 () 코치다' 첫 번째 이야기

활기찬 2024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코치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엇그제 2024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치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상반기 일정들 모두 잘 진행하셨는지요? 코치님들 원하시는 대로 상반기 잘 마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또한 뜻하신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15,048명의 인준코치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학계, 종교계, 관계, 기업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심의 명예코치님들도 금년 상반기 8명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4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코치님들과 명예코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 우리 한국코치협회 숙원사업이었던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교육, 사업 온라인신청, 온라인 자격갱신, 과금 결제, 각종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회원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코치 인증시험 응시, 심사, 합격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디지털 진전화구축을 통해 코칭 허브 플랫폼 역할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회는 노사발전재단 주관 중소기업 CEO코칭을 3년 연속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과 5월 7일 2일간 참여코치님들과 노사발전재단 이터혁신본부장님과 함께 발대식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토요일에는 제2회 <코칭, 북페이>를 왕십리역 광장에서 <너와 나의 행복 코칭>이란 주제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고, 같은 날 <삼성희망 디딤돌 가족 멘토 코칭워크숍>을 시작하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제2회 중소기업 CEO 코칭포럼>, 9월 <제6회 코칭학술포럼>, 10월 <제21회 코칭컨퍼런스>이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코칭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며, 코치님들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과 코칭 기회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은 <코칭과 코칭 리더십의 시대>입니다. 점점 더 우리 코치님들께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치님들께서도 협회에 원하시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제안하고 모니터링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발전하는 협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한국코치협회 회장 김영현

COACHING의 창을 열며

ASSOCIATION OF NEWS



- 02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
제21회 대한민국코칭컨퍼런스위원회 출범
- 06 제2회 코칭, 북페어_너와 나의 행복 코칭
- 10 홈페이지 리뉴얼과 함께하는 즐거운 활용법
- 22 크리스천 코칭 사역 이야기
- 24 협회 단신_ 지부장 간담회 / 명예코치 간담회 / 월례 세미나



FOCUS IN COACH

- 14 기후위기와 ESG 경영_ 조석준 명예코치
- 16 어치브코칭 이형준 대표 코치를 만나다
- 18 나는 (100번째 KSC) 코치다_ 권민정
- 20 2023년 올해의 코치상 수상자_ 김응자, 오정근



KCA 사랑방

- 26 편집국에서 알립니다
- 27 홈페이지 리뉴얼 축하 메시지

코치들의 총화의 장, 나눔의 장, 축제의 장!

제21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을 준비하다!

한국코치협회는 지난 5월 1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교육실에서 제21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이하 코컨페) 발대식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1부는 최기연 기획국장의 사회로 코치의 선서와 함께 문을 열었고, 김영헌 회장과 최용균 이사, 진권 홍보위원장의 인사말과 국별 자기소개를 하며 홍보위원회에 임하는 마음을 나눴다.

글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 인증코치)
편집 윤영식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김영헌 회장은 인사말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코컨페를 준비하는 국장 및 위원들에게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 '즐기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라고 강조하며 즐겁게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2부는 제20회에 이어 제21회에도 코컨페 위원장을 맡은 진권 홍보위

원장의 진행으로 지난 코컨페를 리뷰하며 좋았던 점과 보완하고 개선할 것 등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들의 점검을 통해 좀 더 발전된 21회 코컨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다. 이어 국별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과 함께 성공적인 코컨페의 첫걸음이 국간 협력과 소통임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실천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코치들의 총화의 장, 나눔의 장,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갈 제21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소개한다.





조직위원장 진권

안녕하세요? 저는 (사)한국코치협회 홍보위원장으로 제2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을 맡은 진권 코치입니다.

여러 현장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코치님들, 그리고 코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기쁘게 인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024년 10월 10일 오전 9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제2회 대한민국 코칭컨퍼스티브의 멋진 막을 펼치기 위해 협회 조직위원회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빛내주실 1,200여 명의 코치님들과 코칭 관계자 여러분, 주요 기업HR 관계자 모든 분들께 미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칭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강력한 도구이자,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개인과 조직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커져가는 오늘날, 코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칭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나 지식 전달을 넘어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코칭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삶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그 자리에 모일 우리는 코칭의 가치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코칭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며,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칭컨퍼스티브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코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개막식에 이어 기초 강연을 통해 코칭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세션을 통해 실질적인 코칭 스킬과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치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칭평과 코칭 관련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코칭의 저변을 확대하고, 코칭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HR 담당자분들을 초대하여 코칭을 활용한 인재 개발 및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코칭컨퍼스티브가 코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코칭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얻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칭컨퍼스티브를 위해 애써주시는 한국코치협회 회장님, 이사님들 그리고 조직위원회 5명의 국장님들과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원에 주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2024년 10월 10일 만나 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국

제2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 페스티벌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은 밖으로는 코컨페에 참여하는 업체, 학교, 개인과 소통하고 안으로는 홍보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국의 활동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또한 협회 사무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참가자, 협회, 코컨페 준비위가 잘 맞물린 튼튼바퀴처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합니다.

사무국은 예산과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각국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정보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회 코칭컨퍼런스 페스티벌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코칭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고, 이를 나눔으로써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혜진 사무국장(KPC) : 더성장인 대표코치

남찬희 사무국위원(KPC) : 모루 시니어코치

기획국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 슬로건을 중심으로 기획국에서는 소통의 장, 성장의 장, 그리고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획국은 스폰서십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팀으로 손경화/홍유식/임선주/김선영 코치님들이 위원으로 함께 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 페스티벌은 모든 코치님들의 노력과 열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만큼 새로운 인사이트와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치님들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식과 통찰력, 전문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통해 개인과 조직,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에 소통과 성장, 축제의 장으로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갈길 희망합니다.

최기연 기획국장(KPC) : 피플연 대표코치

김선영 기획위원(KPC) : 한국의료코칭센터 대표코치

홍유식 기획위원(KPC) : 와이드코칭 수석코치

임선주 기획위원(KPC) : 적선유경 대표코치

손경화 기획위원(KPC) : 인코칭 전문코치

편집국



코치들의 축제 한마당! 제2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 페스티벌에서 편집국은 코컨페 자료집과 협회지를 제작,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코컨페의 각 세션별 발표자와 프로그램 소개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용이 풍성한 자료집 제작에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협회지는 보다 많은 코치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협회와 코치님들의 소식을 내실 있게 전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칭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협회의 비전과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 슬로건의 방향성에 맞게 독자들에게 행복한 협회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지를 통해 협회뿐 아니라 코치님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숙자 편집국장(KPC) : 여해코칭컴퍼니 파트너코치

이성미 편집위원(KPC) : 국제코치훈련원 파트너코치

유덕중 편집위원(KAC) : 루카스 경영컨설팅 대표

신정순 편집위원(KPC) : 슌숨코칭 파트너스 대표코치

윤영식 편집위원(KAC) : 더성장인 파트너코치



1 사무국 2 기획국





3 편집국
4 운영국
5 홍보국



4 5

일시 2024년 5월 1일(수) 10시

장소 전국지역아동센터합



운영국

운영국은 제21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 이벤트 기획부터 당일 행사 진행까지 참가자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며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칭컨퍼런스는 코치님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운영국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코칭컨퍼런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코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회원님들 꼭 참여해서 코칭의 다양한 측면도 탐구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1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10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홍자연 운영국장(KPC) : 언어교육개발원장
- 강명진 운영위원(KPC) : M.I.T.Z 교육회사 대표
- 권민성 운영위원(KPC) : 피플앤커리어그룹 교육사업부 대리
- 김재중 운영위원(예비코치) : 세종아이피브릿지 투자심사역
- 노진백 운영위원(KPC) : 공군 항공기 정비 팀장



홍보국

홍보국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코칭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조직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코칭의 효과를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리고 함께 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SNS 채널과 코칭북페어 현장에서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설득력 있는 홍보물 제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코치협회에서 20년 이상 연례행사로 진행 중이며 코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한민국코칭컨퍼런스'를 통해 코칭의 저변을 보다 넓히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보국은 책임감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국지혜/김경민/서정아 코치가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코칭을 더 깊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코칭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코칭이 개인의 삶과 조직의 성공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로 스며들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 김혜진 홍보국장(KPC) : 여해코칭컴퍼니 파트너코치
- 국지혜 홍보위원(KPC) : 넥슨게임즈 HR담당
- 김경민 홍보위원(KAC) : 달로스음악심리연구소 대표
- 서정아 홍보위원(KAC) : 희망친구 기아대책 팀장

“제2회 코칭, 북페어 너와 나의 행복 코칭” 현장을 가다



원고 오연영 (역량강화위원장 / KPC 인증코치)
정리 유덕중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한국코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코칭, 북페어’가 2024년 6월 1일 오전 11시부터 17시까지 왕십리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도서 소개 및 판매 부스, 컬러코칭, 그림코칭, 아로마코칭, 도형코칭, 질문카드코칭 등 코칭 체험과 1:1 길거리 코칭 캠프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3백명이 넘는 고객들이 부스를 찾았다고 한다.

2024년 2회 북페어에서 중점을 둔 것은?

“코칭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라는 협회의 미션과 연결된 이번 슬로건인 ‘너와 나의 행복 코칭’은 이를 통해 코칭이 개인의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코칭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코칭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번 북페어의 목표는 첫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코칭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자원과 능력을 발견하여 더 만족하는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둘째,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코칭의 학문적 연구와 기술적 측면, 사례 등 다양한 면에서의 전문성

을 확인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코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셋째, 협회에서 배출한 1만 5천여 명의 전문 코치님들이 직업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삶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후 소감

부스에 참여했던 코치님들이 보내주신 긍정적 피드백과 감동의 모습에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장소 선정이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가 지자체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이후, 역량강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지난 2월부터 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전화하고, 방문하며 답사를 이어간 끝에 왕십리 광장에서 올해 두번째 북페어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지와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가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량강화 위원님들과 함께 수고해 주신 홍보위원회 및 참여하신 모든 코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페어 현장 이모저모

취재, 인터뷰 윤영식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이성미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 인증코치)

눈부신 6월의 첫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왕십리 광장에서 열린 제2회 코칭, 북페어 현장을 코칭지 편집진이 다녀왔다. 뜨거운 태양만큼 코치들의 열정은 강렬했고, 부스마다 열린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는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개인과 조직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번 제2회 코칭, 북페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김영현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개막식은 참가자들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눈 책추남 TV의 북코칭으로 이어지면서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다음코너인 코칭 시 낭송과 강연은 참가자들에게 진지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겨주었다. 특히 '셀프코칭'으로 1인극을 펼친 박지현 코치는 주인공 현아가 셀프 코칭을 통해 감사와 행복을 깨닫는 과정을 직접 연극으로 보여주어 인상 깊은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에 기타와 피아노 연주, 듀엣 등 음악공연을 펼쳐져 행사에 참가한 코치들 뿐 아니라 광장 주변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멋진 화음을 들려주어 함께 하는 코치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편, 광장 안쪽 공감 테이블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사전 신청자 10명과 코치협회 김영현 회장의 "특별한 대화"가 열려 한국



1 연극 2 1:1 길거리 코칭 3 음악공연

코치협회에 대해 궁금한 점, 협회 발전과 코칭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등 따뜻하면서도 열띤 대화가 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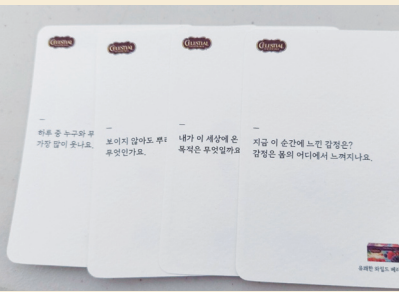
코칭 책 저자, 코칭 펴, 학교 및 기관, 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을 전시하고 판매한 각 부스에서는 그들만의 도구와 흥미로운 이벤트로 각종 체험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칭을 전파했다. 그 중 시음코너를 제공한 '셀레셜 시즈닝스 마음챙김'(마케팅 대표 최인후)와 참가자들에게 뽀기를 유도하면서 재미있게 코칭 도구를 접하는 기회를 만들었던 '블루밍경영연구소', 현재 공부하고 있는 동기를 뿐 아니라 졸업한 동문들까지 나와 학교와 과정을 소개한 '경희대학교원 MBA 코칭사이언스 전공' 부스 등이 특히 눈에 띄었다.

1 북코칭 2 코칭 시 낭송 3 코칭강연



4 회장님과의 공감테이블





북페어를 주관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다른 주인공은 잘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어준 참관 코치들, 그리고 바로 그 밥상을 차린 코치들이라 하겠다.

제2회 북페어는 행사용 텐트를 세우고 부스를 설치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나르면서 새벽 6시에 시작되어 마무리 청소까지 저녁 7시에 마쳤다. 아무런 댓가없이 행사를 위해, 다른 코치들의 발현을 위해 뒤에서 소리 없이 봉사해 준 수 많은 코치들이야말로 이번 북페어의 진정한 프레즌스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2025년 세번째 북페어는 또 어떤 모습으로 감동을 줄 지 기다려진다. ㉠

Q. '셀레셜 시즈닝스 마음챙김 티 세트'를 소개해주세요

'셀레셜 시즈닝스'는 미국 블렌딩 티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수입원 '매직랩'을 통해 베스트 셀러 티 6종을 커스텀하여 구성한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30장의 코칭질문 카드, 귀여운 스티커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온전한 나의 마음을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마음챙김 티'라는 이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차를 내리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리고 차를 마시는 동안 스스로에게 카드에 적혀있는 질문들을 해보면서 셀프코칭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Q. 이번 북페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컨설팅과 코칭을 하면서 '어떻게 코칭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해왔습니다. 좋은 대표님을 만나 '셀레셜 시즈닝스 마음챙김 티 세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코칭을 모르는 분들이 코칭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밥상을 차린 코치들의 소감을 들어보자

이번 코칭 북페어 행사를 통해 저 자신을 숨코치로 처음 소개하게 되어서 코치로서 제 인생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 코칭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저 또한 숨코치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코칭하겠습니다.
- 박지현 코치

"난 정말 용감해,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북페어 행사에서 친정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코칭을 알고 난 후 보이는 세상과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연을 들으시는 시부모님과 가족들, 관객들의 눈빛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야할 곳이 어딘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권세연 코치

북코칭 토크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코치님들의 수준 높은 질문과 순수한 열정은 제가 하버드에서 유학했을 때도 쉽게 느껴볼 수 없던 진정성 넘치는 통찰과 따뜻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책추남TV 운영자 조우석 코치

'제1회 북페어'에는 서포터즈로, 이번에는 발표자로 참여하였는데 자칫 자신이 알고 있는 코칭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코칭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북페어 이외에 코치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행사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김영태 코치



북 콘서트 1부
임기용 코치

박세연 코치

한숙기 코치

이러 밥상을 받은 코치들의 소감

코칭 북페어에 처음 참석했는데 가족이 다 함께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고 선물도 많이 받고 좋은 책과 저자분들도 만나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명 중 두 명이나 행운권 당첨이 되다니 정말 운 좋은 날이네요~ ^^
부부코치 가족의 첫 참관 소감 - 김태진 / 신혜정 코치, 딸 지울

서울 왕십리 한복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커리어 고민을 나누고,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건지 질문 카드를 함께 나누며 깊이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저의 소감은 "이거, 내년에 또 오자"입니다.

왜? 짜릿하니까~ - 김현호 코치

코칭 관련 다양한 책과 도구를 접할 수 있고, 직접 체험(카드 게임, 타로 코칭 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히, 코칭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이상수 코치

코칭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아채로웠습니다. 북페어라기 보다는 코칭페어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책을 소개하고 저자와 만나는 분위기는 실내가 더 집중이 될것 같아요.

- 정희재 코치

책에 대한 소개 요약본 1장 정도씩은 앞에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준민 코치

북페어 참여 기관(8곳)과 개인코치(33명)

코칭경영원, KCN, 인코칭, 블루밍경영연구소, 코칭프렌즈, 한국코칭수퍼비전아카데미, 경희대학교원MBA 코칭사이언스 전공, 동화세상 에듀코(바인그룹), 야호기 지개/이미연, GROW6 코칭질문카드/나정연, GROW6 코칭질문카드/이유경, 컬러코칭(오라소마·아로마테라피)/김은정, 매출 '확 띄우는' 상위1% 마케팅/김현호, 코칭학.지평, 실제 그리고 연구/조성진, 초보 직장인을 위한 직장생활 설명서/김영태,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진성부모회 최수황 외, 코치와 산책하기/김상만, 11 길거리 코칭/송실대학교 커리어학습코칭학과, 대학생 진로 프로그램/한국커리어·학습코칭연구소, 커리어코치도 커리어고민을 합니다/남상은, 트리즈 코칭/박영수, 라이프코칭·아로마코칭/최정윤, 진로 이야기를 만나다/윤성혜, 스트레스를 조율하는 리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직원/최환규, 꽃 저 눈부신 함성이여/고홍곤, 코칭이 내 삶에 스며들때/김리은 외, Art Coaching-그림으로 배우는 코칭/이정화, 고부공감/권세연 외, 패밀리 코칭/최정자, 숨 코칭센터/박지현, 셀레셜시즈닝스 마음챙김 TEA/최인후, MBTI코칭 상담 가이드/최용균, 코칭하는 조직만 살아남는다/배재훈 외, 아티스트 코칭/이혜정, HR 비즈니스 코칭/임기용외, 건강코칭/JS 창조코칭연구소 홍진숙, FRIENDSHIP 또래코칭/김성희, 사랑·공동체·시너지를 추구하는 지혜창조연구소/김민영, 코칭학술대회/김대곤, 필그림웨비아/손용민, 엄마반성문/이유남

공감무대 주요 프로그램

북코칭(책추남TV) 음악공연(연주-최수황, 노래-최용균, 손용민), 코칭 시 낭송(최정자), 코칭강연(권세연, 이유남), 북콘서트 I ('23 올해의 코칭 도서상 / 임기용,한숙기,박소연), 셀프코칭연극(박지현), 북콘서트 II(김태곤, 김리은, 박영수, 한민수, 정다정, 고홍곤, 김영태)



고홍곤 코치

박영수 코치

김영태 코치

김태곤 코치

북 콘서트 2부

김리은 코치

한민수 코치

정다정 코치

홈페이지 리뉴얼과 함께하는 즐거운 활용법

기고 이희상 (리뉴얼&업무 전산화 PM / KPC 인증코치)

정리 유덕중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이희상

리뉴얼&업무 전산화 PM /
KPC 인증코치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 리뉴얼의 의의

홈페이지는 한 단체가 현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 규정이 있는 조직문화 등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지 10년이 훨씬 넘는 기존의 협회 홈페이지는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를 가진 PC 및 디바이스로 사용하기 불편했고, 첫 화면이나 메뉴구성의 배치가 직관적이지 않았으며, 방문자들의 유형을 구분해서 정보를 배치했거나 우선적으로 보고 싶은 정보의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결제나 취소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없었고, 자격증이나 교육 참가 확인증, 위원회 활동 등의 증명을 원할 경우 협회 실무자에게 요청하고 실무자가 처리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부터 협회 회원들의 니즈까지 확장하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의 주안점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하더라도 최적의 환경에서 메뉴들을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유형을 일반인, 예비코치, 전문코치, 코칭기관 4가지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고 싶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칭을 모르는 분들에게 코칭에 대한 소개나 협회에 대한 정보가, 코치자격증을 준비하는 예비코치에게 시험일정이나 응시 관련 정보가, 전문코치에게 사업참여 기회 정보가 관심 있을 것이고, 코칭기관들에게 프로그램인증 신청절차나 이미 인증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메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메뉴명과 함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능들끼리 묶어서 사용자가 메뉴선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기능, 인증코치 리스트에서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 프로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코치님들의 홍보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록관리 면에서는 인증시험 이력, 위원회 활동 이력, 코치협회 교육 활동 이력, 심사위원 이력, 결제 내역 등 코치님들이 협회에 참여한 주요 활동을 기록으로 남게 했고 제출에 필요한 코치 인증서, 협회 교육 참가증, 심사위원이나 위원회 활동 증명서 등을 직접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활용 팁 세가지

첫째, 코치님 개개인의 프로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은 '마이페이지'내 정보 관리' 페이지 하단 추가 입력 정보에서 자기소개, 코칭 분야, 코치활동지역, 교육 이수 내역, 기타보유자격, 경력 사항 등을 기입하실 수 있고, 개인 홈페이지/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링

크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개인 프로필에서 해당 SNS의 아이콘을 통해 직접 연결됩니다. 다만 개인 프로필은 '마이페이지'내 정보 관리' 페이지 상단 '코칭정보 공개 여부'항목을 공개로 설정한 경우에만 노출이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고 코치님들의 자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코치인증 필기시험 때 PC 사용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필기시험은 주어진 시간안에 정해진 문항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온라인 필기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시험 중 걸려오는 전화나 지인 혹은 마케팅 업체가 보내는 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 앱에서 보내는 알림 등의 방해가 받아 필기시험에 몰입하기 힘들고 시간 내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반드시 방해로부터 안전한 PC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리뉴얼에서 기능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기는 하였지만, 모든 것을 자동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증시험, 협회 교육등을 신청하고 취소할 때, 사용자의 취소요청에 대해 실무자가 추가 작업을 해야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화면에 보이는 절차를 읽고 그대로 찬찬히 따라 하시면 한 번에 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협회 실무자들이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활용 팁 세가지

1. 개인 프로필 활용하여 홍보하기
2. 코치인증(KAC KPC KSC) 필기시험은 반드시 PC로 응시하기
3. 화면에 보이는 절차대로 믿고 찬찬히 따라가기

Thanks to

믿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김영도 부회장님, 실무와 개발 관련 회의로 수고하신 육형숙처장님, 정호진팀장님, 초기 업체선정에서 디자인 회의까지 함께 해 주신 김다운, 남찬희, 남효승 코치님, 전화화에 적합한 인증 프로세스 수정에 협조해 주신 인증위원회 박세환 위원장님과 코치인증 및 프로그램인증 국장님들, 방대한 분량의 인계 테스트에 참여한 코치협회 실무자분들,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신 파트너사 BVS ©



홈페이지 리뉴얼, 숨은 조력자를 만나다

인터뷰, 정리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 인증코치)

지난 5월, 협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PM을 맡은 이희상 코치님의 리더십과 협력사의 기술 역량, 그리고 숨은 조력자인 바로 사무처 직원들의 엄청난 노고 덕분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준 그들을 만나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의 희로애락을 들어보았다.

Q.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 과정은?

먼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다 나은 시스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전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기능 보완과 회원님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무처 직원들은 이희상 코치님과 함께 협력사와의 수많은 기획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수개월간 진행된 기획회의에서는 그간 사무처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에 필요한 기능들을 상세히 요구하였는데, 다소 낮설었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용어는 이희상 코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되어 주셔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코치 인증 온라인 시험과

결제 시스템 구축, 증명서 제공 등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최대한 갖추려 노력하였고, 협력사에서 만들어 온 화면정의를서를 피드백하고 일일이 테스트하는 꼼꼼한 과정을 거쳐 리뉴얼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인 코치인증 자격시험 온라인 신청은 해당 업무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무처직원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으며, 홈페이지 리뉴얼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Q. 작업 중 힘들었던 점은?

각 프로세스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협회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각 콘텐츠에 들어갈 내용들을 담은 원고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은 정해진 기한이 있어 시간적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검토가 늦어져 개발이 지연되면 홈페이지 오픈 시기도 연장되기 때문에 마감일을 지키려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날도 잦았고, 밤이 새는지도 모른 채 아침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요구 사항과 협력사의 기술적 역량의 간극으로 인해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이 도중에 중단된 아찔한 기억이 있기에 금번 리뉴얼 개발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가장 힘들었습





정호진 팀장, 육형숙 사무처장, 남혜란 과장

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리뉴얼 후 회원분들의 칭찬과 감동의 댓글들을 보며 그간 고생한 것들이 사르르 녹았고, 마음 졸였던 코치인증 자격시험 온라인 접수가 오류 없이 마감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간의 수고를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Q.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가 코치님들에게 디지털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고객들이 협회가 배출한 코치님들과 연결되어 코칭이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홍보하고, 디지털상에서 전문적으로 고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홈페이지를 순차적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리뉴얼을 기반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찾는 코치님들과 고객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의 추가 개발 등 업그레이드도 계속 진행 중이니 코치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Q. 협회 회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홈페이지 기능보다 많이 개선되고 편리해지긴 했지만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것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관리를 많이 등록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치님들의 데이터는 개인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이 협회뿐 아니라 코치님들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



기후위기와 ESG 경영

글 조석준 (제9대 기상청장 / KCA 명예코치)

편집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 인증코치)

기상(weather)과 기후(climate)는 지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원래 기상 즉, 날씨는 사람의 기분처럼 수시로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기후는 사람의 성격처럼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요소다. 그래서 날씨는 변수요, 기후는 상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18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고 급기야는 상수였던 기후가 변화하면서 그동안 인류가 전혀 겪지 못했던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PCC(국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는 국제기구에 소속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난 30년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한다. IPCC는 5-6년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는데, 2023년에 6차 보고서를 내놨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지구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상당 부분 줄이지 않으면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이 올라 지구 생명체가 감당 못할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로 더 심각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자연생태계가 변하면서 곳곳에서 동식

물이 멸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물 부족과 식량 위기 등의 사태를 초래하고 이 때문에 전쟁과 난민, 질병, 각종 재난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 세계 경제, 국제정치 전반에 기후변화 도미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은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라 국제적인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정식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제 각국은 총성 없는 전쟁인 기후변화 협상을 벌이면서 자국의 기후변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국에 할당된 탄소 배출량 목표, 에너지 체계 전환에 따른 산업계의 재편 등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후위기는 심각한 기상이변이나 자연생태계 파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저탄소경제 이행에 따른 탄소세 부담 등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조치들이 있다. 특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이라는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부담을 크게 갖게 될 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기후위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상이변이나 자연생태계 변화 등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리스크>다. 물리적 리스크는 과학적인 예측과 사회 인프라적인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 <이행 리스크>는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경제나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과 비즈니스 전반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이다. 이미 영국이나 한국의 금융 당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정도에 따라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 평가를 하고 이를 여신 한도나 투자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산 가치도 기후리스크 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금융 정책만 달라지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전면적인 ESG 경영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근래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이 기업의 기후리스크 대응 여부를 신뢰도 평가나 여신 한도와 연결 짓고 있으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ESG 경영의 여파도 중소기업에게는 크나큰 경영 압박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적



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른 충격 완화 대비책이 필요하다. 흔히 다양한 위기 때마다 정부가 취하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장 효과적인 정부 대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전문적인 경영코칭이 반드시 필요한 바, 이러한 프로젝트를 금융기관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실행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제 많은 정부 부처에서 나름대로 저탄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전해지는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의 뉴스도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생활비 증가, 물가 인상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후위기 여파가 다가온다면 민심의 동요 또한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반드시, 기업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학습코칭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대국민 기후위기 인식을 고취시키는 일련의 설득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은 인류공존을 위한 긍정적 조치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면 뜻하지 않은 국민적 저항을 맞을 공산도 크다. 우리는 개도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

글로벌 콘텐츠 라이브러리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어치브코칭 이형준 대표코치

'한국형 팀 코칭 모델 설계자'이자 '사내코치들의 선생님'으로 불리며 코칭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어치브코칭의 이형준 대표코치를 취재했다.

인터뷰, 편집 유덕중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이성미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 인증코치)



(주)어치브코칭은 美 Achieve+Forum의 국내 리더십/세일즈 전문 HRD 컨설팅 업체인 (주)한국포럼의 비즈니스 코칭센터가 독립하여 만들어진 회사로 특히 리더십, 세일즈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ICF와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들의 진정성 있는 코칭을 더해 고객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려운 기간에도 AbbVie, Roche, Daiichisankyo, Menarini 등 글로벌 리딩 컴퍼니와 LG유플러스, LG화학, CJ올리브네트웍스, 퍼시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과 함께 성장해왔다.



어치브코칭만의 경쟁력?

“리더십과 세일즈 전문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과 코칭을 접목”

오랫동안 우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미국 Achieve+Forum은 세계적인 글로벌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가진 회사입니다. 모든 직무별로 역량지도가 만들어져 있고 특히 세일즈와 리더십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어떻게 성과를 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컨설팅과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치브 코칭은 여기에 코칭을 결합해 보다 강력해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저희와 함께 한 뒤로 매출이 늘어서 계속 계약을 이어 나가는 고객사가 많다는 것이 어치브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어치브코칭의 특별함?

저희의 강점은 팀 코칭과 인터널 코칭, 그리고 미션입니다.

2014년에 'FIRE! 불붙는 조직 만들기'라는 책을 냈고, 2023년에 “팀 코칭 ALIGN” 책을 낼 만큼 팀 코칭쪽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기업들과는 다른 한국적 상황에 맞는 팀 코칭 기법을 개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미션?

코칭을 통해 고객만 좋아진다면 그게 옳은 걸까요? 어치브 코칭은 행복을 중요시합니다.

고객 뿐 아니라 함께 하는 코치님들도 한 분 한 분 자신만의 색깔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코치가 되도록 돕는 게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널 코치 프로그램 과정 소개?

실제로 사내 코칭을 하셨던 고객분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코칭 공부는 했는데 막상 하려니 두렵다, 회사에서 사내코치 후보는 자기 혼자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항상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코치라고 했을 때 믿어줄 지 모르겠다, 이런 것 좀 해결해달라는 요구 때문이었죠. 그래서 매주 3시간씩 20주 교육, 동문회와 커뮤니티 운영, 코치협회 자격증 취득 조건을 갖춘 탄탄한 인증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널 코칭 전문가 과정 5기가 6월말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팀 코칭이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2016년에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면 팀 코칭은 전체 코칭의 9%에 불과하지만 조직의 76%는 향후 팀 코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일까요? 팀 코칭 성과가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코칭은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한국 기업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3,4개월 안에 성과를 내야하고 문제 해결의 관점이 개인이 아닌 맥락이나 타인의 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외국과는 팀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외국의 팀 코칭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이 교육이 아니라 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고객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팀 코칭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라 이를 준비하는 코치님들이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갈 때는 팀코칭 ALIGN”이라는 책도 냈고 “팀 코칭 ALIGN 과정”도 만들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책은 권은경 코치님, 김종철 코치님, 김현숙 코치님, 남윤정 코치님과 함께 팀으로써 쓴 책입니다. 과연 팀 코칭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찾은 단어가 'ALIGN'인데요. 강력한 목적과 건강한 구조, 적합한 인재, 적절한 프로세스, 필요 자원이 ALIGN, 즉 정렬이 되면 영문의 첫 글자들이 의미하는 대로 모든 팀원이 공유하고 가슴 뛰는 목적을 만들어내며, 조직의 토대를 마련하고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발굴 성장시키고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조직 내 자원의 배분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코치는 고객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한국 최초의 팀 코칭 모델로 '팀코칭 ALIGN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직장인의 행복한 성공을 도와주는 코치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코치로서의 앞으로의 바람이나 꿈 너머의 꿈은?

'지혜로운 코치'가 되는 것. 함께 하는 코치님들이 잘 성장하고,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잘 돕는 것, 이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순간 순간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제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



이형준 코치

KSC 인증코치
(주)어치브코칭 대표 코치

광고회사 AE로 출발, 2005년 KAC 취득,
코칭계 입문 19년차, 브런치 작가.

지혜로운 코치를 지향하지만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성실한)코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 지상 밑에 지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3년간 약 1,000개의 블로그를 꾸준히 올리며 버텼던 경험이 있는 사람. 코로나를 함께 극복해온 직원, 코치, 고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매일 4시 반에 일어나 POWER(Pray, 기도하고 Oath, 다짐 적기, Writing, 일기 쓰기, Exercise 운동하기, Reading, 독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블로그에 찰스 핸디의 말로 화두를 던졌다.

“삶의 끝에 남은 질문은 두 개다. 누구를 도왔나? 얼마나 배웠나?”

나는 (100번째 KSC) 코치다

글 권민정 (KSC 인증코치 / SK Coaches 대표코치)
정리 유덕중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인사와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세상 숲의 정원사”를 꿈꾸는 100번째 KSC 코치 권민정입니다. 저는 약 3년 전 코칭을 리더십 교육으로 처음 접했습니다.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조금 더 신뢰하고 위안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병들어 치료하기보단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코칭을 만났습니다. 코칭이 ‘착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코칭으로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상 숲의 정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숲의 넓이와 깊이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조직의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코칭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코칭을 통해 일과 삶의 의미를 찾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100이라는 숫자, 그리고 KSC의 의미

저의 인증번호 KSC00100은 데칼코마니 형상이고 기억하기도 쉬운 번호라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이라는 숫자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리로 넘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코칭이 좀 더 대중화되고 확산되는 시작점에 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한국에 코칭을 뿌리내리고 건강하게 키워내 더 좋은 환경에서 코칭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모든 선배 코치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동시에 코칭을 코칭답게 지켜 가야 한다는 후배로서의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다른 코치님들로부터 “KSC가 꼭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현재 혹은 미래의 시점과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SC보다 오히려 KPC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ROI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코칭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코칭이 너무 재미있었고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끝은 모르지만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기로 결심했고 언젠가 전문 코치 활동을 시작할 때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KSC는 더 좋은 코치가 되어가는 과정 중의 한 단계로서 제가 방향성을 세우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KSC 도전기

21년 6월 KAC부터 24년 2월 KSC를 취득하기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정말 코칭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직장인이라 전문 코치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었기에 다양한 학습공간에서 다양한 코치님들께 가르침을 받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여러 가지 시도로 저의 가능성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함은 많은 배움이 될 수 있어 좋지만 반면 매우 혼란스럽고 중심을 잡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소화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다름을 비교하다 보니 오히려 폭넓은 시각과 맥락에서 코칭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KSC에 합격한 비결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사람마다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있고 그만큼의 연습과 경험으로 공감받는 코칭을 하는 방법 밖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된 것을 꼽자면 계속 작은 단계의 목표들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학습 과정에 저를 밀어 넣은 것과 긴 여정을 함께 해왔던 다양한 곳에서 만난 동료 코치님들입니다. 코치님들이 워낙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서로에게 긍정적 자극과 격려가 되어 함께



성장해 온 다른 코치님들과의 연대가 도전을 지속하게 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칭은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자기 관점의 애정과 호기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생각과 관점을 나누는 피드백이 이해를 넓혀가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각화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코칭의 과정을 눈에 보이게 만든 저만의 장치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독려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경험이 있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특성”을 파악해서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코칭 학습에서 “하기, 받기, 보기, 주기” 4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고객을 코칭하는 것, 좋거나 아쉬운 코칭도 받아보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의 코칭을 많이 보는 것,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솔직한 내면과 자신의 코칭을 오픈하는 용기를 내는 것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배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극복

코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올라가고 내려오는 순간을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마치 반구 위에서 몸의 균형을 맞춰가만히 서 있기 어려운 것처럼 코치로서의 역량을 한 번에 균형 있게 발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 고민이지만 돌아보니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세워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구 위에서 중심을 더 단단히 잡기 위해서는 코어의 힘을 키우고 잔근육을 키워야 하듯이 우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코칭 철학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코칭이 내 삶과 존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재화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련의 힘을 키워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매번 만나는 코칭에서의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코치님들께 KSC가 되기 위한 800시간 동안 800번의 실패를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실패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과정이 되고 배움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즐거운 깨달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피드백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는 것 그리고 코칭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기억하며 모든 생각과 의견에 대한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성장을 위한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치다운 코치가 되기 위해 더 필요한 것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큼 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용서해야 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다른 사람을 위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돌봄이 중요한데 의외로 코치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 같고 요즘의 제 코칭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정말 많은 코치님들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코치로써 성장했을 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발견하면서 Human Being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끈기 있게 버텨 낸 저에게 애썼다고 인정해주고 싶고, 지도해 주시고 좋은 학습 파트너가 되어 주신 모든 코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코칭에 대한 갈증이 있기에 계속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좋은 코치이자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만의 북극성을 향해 오랫동안 코치다운 코치로써 존재하며 그 여정에서 코치님들을 반갑게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

각자의 삶에서 코치다운을 실천하고 계시는 코치님들의, 코치님들에 의한, 코치님들을 위한 '나는 () 코치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코치로서의 확실한 사명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코칭 현장에서 코치님들과 공감을 나누거나 공유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으신 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으신 분, 나를 알리거나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은 '나는 () 코치다'에 기고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코치협회 5만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문의 :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lovesj7963@naver.com / 010-9858-7963)

2023년 올해의 코치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 **묵묵히 걸어가는 진정한 코치** 



인터뷰, 편집 윤영식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AC 인증코치)



김응자 코치

Q. 올해의 코치상(2023년)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이 무엇인가요?

2023년 올해의 코치상은 한국코치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면서 제가 코칭을 입문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기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은 남서울대 코칭학과를 졸업하고도 저를 잊지 않은 제자들의 추천이어서 더욱 몽클한 감동이었으며, 앞서 올해의 코치상을

받으신 선배님들의 '진작 받았어야 하는데 늦었다'라는 축하의 말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듯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코칭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남서울대학교 코칭학과 영광이며 자랑이다"라는 축하 인사는 앞으로 코치로서 한국코치협회의 영광과 자랑이며 더불어 고객에게도 영광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현재 코치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의 코칭분야는 '부모코칭'입니다. 저는 아동복지전공자로서 '이 땅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코칭, 발달코칭, 학습코칭, 진로코칭을 통해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라면, 저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보급하고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통해 연간 1,000여 명 이상의 부모와 교사, 사회복지사의 코칭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코치로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한자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通(통합통)'자입니다. '通'은 人

(쉬엄쉬엄 갈 척)과 甬(길 용, 종머리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쉬엄 쉬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아동복지전공자로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 환경인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들의 코치로서의 역량을 키워줄 것이며, 그들 스스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와 통하고 배우자와 통하고 가족이 모두 통해서, '행복'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코칭을 확산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코치다움'을 넘어 저의 삶 자체가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코치인가?' 혹은 '저 사람이 코치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고 제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코치'가 될 수 있도록 묵묵히 노력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Q. 이제 막 코칭의 세계에 입문하는 후배 코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이들과 아이들을 지원하는 부모와 교사를 만나면서 늘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 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어서 힘든 이들을 보면서 저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때가 되면 뒤집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수십 번의 반복과 수십 번의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또 넘어졌네', '나는 안되나 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안정적으로 서고 걷고 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코칭이라는 걸음마를 시작함과 동시에 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후배 코치님들도 분명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通'처럼 묵묵히 걷다 보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칭을 잘한다는 나만의 기준은 무엇인가?', '코칭을 하는 나는 코칭을 사랑하는가?', '나는 고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코칭을 하면서 행복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칭'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고객과 같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코칭은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인터뷰, 편집 신정순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 인증코치)



오정근 코치

Q. 올해의 코치상(2023년)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분들 - 김재우 회장님, 김영현 회장님, 하우코칭의 현미숙대표님 등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받은 코치상은 '코칭 문화 확산' 부문이었습니다. 협회의 코치

대회에서 철학 기반의 코칭 논문을 주제발표한 것을 계기로 협회에서 연구개발 위원장을 맡게 주신 덕에 코칭 학술대회를 2년간 주관했습니다. 코칭협회의 지향점이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에 있듯이 그에 걸맞은 코칭의 이론적 토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대학원에서 코칭 과목을 강의하면서 동서양 철학 기반의 코칭 논문들을 써왔고, 협회의 자격유지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치의 철학과 코칭의 원리'라는 강의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올해의 최우수 코칭도서로 수상했던 <오정근의 커리어코칭> 책 발간 이후 커리어코칭 수요가 많아져 최근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구성원의 경력개발과 미래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연구 중입니다. 앞서는 기업일수록 최고의 인재 영입과 확보 그리고 성장지원이 화두인만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구조화된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철학에 기반을 둔 K-코칭방법론입니다. 제게 코치상을 주신 것은 코칭문화 확산에 더 기여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연구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Q. 코치님에게 코칭이란 무엇인가요?

코치는 말하지 않은 것을 들을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코칭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발견이라 생각합니다. 코칭 참가자가 약점에서 강점을, 문제에서 기회를, 역경에서 교훈을 발견하여 자신의 가능성과 원하는 미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코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코치라고 저를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도 코칭은 마치 신대륙의 발견처럼 새로운

삶의 발견이었습니다.

카운슬링은 우리말로 상담이라고 합니다. 코칭에 대한 우리말이 아직 없어서 아쉬워 제가 지담이라고 책에 적었습니다. 상담(相談)은 말 그대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심이라면, 코칭은 지담(知談) 즉 지혜를 다루는 대화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코칭은 지혜를 다루는 철학적 대화이며, 철학이 지혜를 발견해 내듯이 코칭대화도 지혜를 발견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Q. 이제 막 코칭의 세계에 입문하는 후배 코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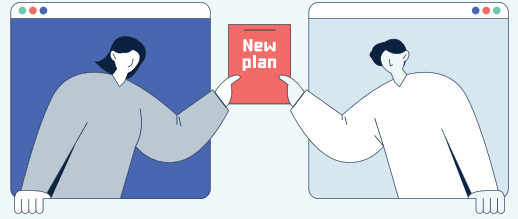
코칭 세계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치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자격시험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그리고 인식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국 한계상황을 돌파하는 과정이었기에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15년 전에 코칭을 배우면서 과연 내가 프로현장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 심정을 잘 알던 선배 코치님들이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기에 리더십코칭을 하다가 코칭참가자로부터 도발적인 반응을 겪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당시 속으로는 등골이 오싹하고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직관을 믿어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고 그것이 참가자의 인식전환을 도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난(難)하니까 능(能)해진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코치들은 말을 들을 줄 알고, 할 줄도 아니까 코치들 세계에 머물면 좋은 감정이 샘솟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점도 얻기 쉽습니다. 스터디건 봉사모임이건 코치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면 코치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14년간 해피포럼이라는 코치들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여 성장의 큰 발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





크리스천 코칭 사역 이야기

코칭문화 확산과 효과

기고 한종진 (KSC 인증코치)

고양시 일산에 있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는 (사)한국코치협회의 정신이 8년째 흐르고 있다. 2016년도에 당시 회장님(김재우 회장)으로부터 기독교계에 코칭을 확산할 수 있는 기독교코칭 프로그램을 협회에서 만드는 것을 제안받고, 당시 이사 4명을 TF팀으로 편성해 함께 CCL(Christian Coaching Leadership)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협회 인증 후 협회에 기증하여 협회 보유 유일한 프로그램이 되었고, 기독교 코칭센터로 조직을 갖추어 운영된 지 올해로 7년 차에 이르렀다. 당시 그 TF의 일원이었던 나는 그동안 섬겨왔던 거룩한빛광성교회에 곧바로 CCL을 전파하기 시작(2017년도)하여 올해로 8년 차가 되었다.



COVID-19로 단체 활동이 막혔던 기간 중에도 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온라인을 활용하여 크리스천코치 양성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금년 전반기까지 11기 교육을 통해 195명의 교육 참여와 161명의 수료자, KPCC 11명과 KAACC 25명을 양성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스스로 KPC로 성장한 코치 1명과 7명의 코치가 KPCC에서 KPC 전환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인증자격 코치들을 자원으로 2020년도에 크리스천코칭 사역팀을 발족하여 교회 사역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코칭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임직자들을 위한 섬김사관학교에서는 코칭적 대화법을 교육하여 리더십을 강화하고 교회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작년 말에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코칭도 진행하였다. 코칭 대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사)한국코치협회 기독교코칭센터와 협력하여 코칭 교육 등을 제공받기로 했고, 이미 전문 코치 양성부터 코칭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더욱 견고히 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크리스천 코칭 문화를 확산하려는 꿈을 키우고 있다.

또한 교회에서 양성된 전문 코치들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목표로 했던 KSC 인증도 2023년 받게 되었으며 나를 포

함한 5명의 가족이 모두 협회 인증 전문 코치(그중 4명이 평생회원)가 되어 함께 꿈을 꾸며 실천해 나가고 있다.

크리스천 코칭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진행된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코칭 과정에서는 경청과 소통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성장하는 과정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도 함께 한다.

거룩한빛광성교회의 크리스천 코칭 사역은 교회 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신앙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교회의 이러한 노력이 계기가 되어 한국코치협회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더욱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코칭의 혜택을 누리며, 더 넓은 사회로 확산되어 한국 코칭 문화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협회 단신 국내 지부장 간담회·명예코치 위촉식·월례 세미나

글. 편집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 인증코치)



2024년 한국코치협회 국내 지부장 간담회

한국코치협회는 지난 5월 16일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원 12층 회의실에서 국내 지부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배재훈 수석부회장의 학교 소개와 김영현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각 지부의 업무 활동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부산지부의 활동 사례는 다른 지사의 본보기가 되어 지부별 활동과 사업에 상호 도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별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멋진 활동을 다짐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습니다.



참석자 : 김영현 회장, 배재훈 수석부회장,

안앤지 부회장, 최용균 기획운영위원장,

이정민 코치, 남윤주 전 대전지부장,

고원준 대전지부장, 김요한 세종지부장,

백용식 전주지부장, 신흥규 광주지부장,

이지현 부산지부장





2024년 명예코치 위촉식 및 간담회

2024년 명예코치 위촉식 및 간담회가 5월 27일 한국코치협회 대교육장에서 협회임원과 기존명예코치, 신입명예코치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협회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위촉패를 수여한 후 명예코치로서 협회에 도움을 주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코치님들의 코칭문화 확산을 위한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2024년 명예코치 : 구수환 (사)이태석재단 이사장, 김경운 광신대학교 총장, 김성환 광신대학교 교수, 박정국 현대자동차 고문,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명구 한국하브루타연합회 부회장, 조석준 레인버드지오(주) 회장, 최원규 연세대 의료원 교수



팬데믹 후 첫 오프 월례 세미나 열려

지난 5월 27일(월) 저녁 7시 두남재 아트홀(강남구 역삼동)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코치협회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코치 다운 삶을 위하여-감사와 살림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멀리 양평에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안남섭 코치(KSC)님께서 2시간에 걸쳐 300명의 참여 코치들에게 코치 다운 삶과 라이프스타일의 영향력으로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코칭 사례 나눔 및 Thanks Model과 코치적 접근으로 공감 식탁 운동 등 조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셨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삶 속에서 코칭다음과 코치다움을 실천하고 계시는 안남섭 코치님의 여정에 깊은 동경과 존경, 그리고 응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

코치님들의 힐링 스페이스를 찾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불확실한 미래. 우리 모두는 코칭과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코치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곳, 다녀오면 다시 짱짱해지는 그곳.

나만의 힐링 스페이스.

유명 관광지나 휴양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코치님만의 힐링 스페이스를 추천해 주세요.



설문조사 기간 : 2024. 7. 15. ~ 8. 14.

설문조사 방법 : 네이버폼 제출 (QR코드를 찍어주세요)

* 참가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9월 중 개별 통보)

제21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 슬로건 4행시 이벤트

2024년도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치님들, 어떤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국코치협회의 비전 2030 '코칭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에 걸맞게
제21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 슬로건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 행복과 코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행/복/여/정 4행시를 지으며 나만의 행복을 나눠주시고, 이벤트 선물도 받으세요.



응모자격 : 한국코치협회 정회원

응모기간 : 2024. 7. 15. ~ 8. 14.

응모방법 : 네이버폼 제출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선정방법 : 홍보위원회 심사단 심사 후 협회 이사회 최종 결정

발 표 : 2024년 9월 중 (개별 통보)



상품내역

최우수 1명 : 5만원 상품권

우 수 3명 : 3만원 상품권

참가상 : KCA 교육포인트 1만점 제공

(한국코치협회 유료 강의 수강 시 사용)

* 참가하신 모든 코치님들께 드립니다~
(최우수, 우수 제외)

홈페이지 리뉴얼 축하 메시지

새로운 도약과 성장~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 리뉴얼을
축하드립니다.
직관적이고 깔끔하며 속도도 빨라졌네요.
교육 신청도 편해졌고, 교육 이수 시간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고,
나날이 발전해 가는 한국코치협회가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 조진숙 -

새로워진 홈페이지에서 달라진 코치협회를
느낍니다
디자인만 멋지게 바뀐 게 아니라 각종
기능들이 보강되었네요.
코치들의 역량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깨알 같은 노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 유덕중 -

바뀐 홈페이지는 현재 코치현황, 협회소식,
시험일정 등이 한눈에 들어와서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볼 때에도 가독성이
매우 좋네요.
앞으로도 더 편리해진 홈페이지에 자주 둘러
정보도 얻고, 교육신청도 하고,
참여도 하겠습니다.
관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금혜란 -

협회의 현황과 알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뜻한 화면, 품격의 색상, 전문가 집단의
이미지에 멋지게 부합합니다.
새 단장을 축하드립니다.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코치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석재 -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 같아 많이 많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코치협회가 대한민국 코치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이상으로 활약을 펼칠 것에 대해
기대가 팍팍 됩니다.

- 임그린 -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리뉴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된
페이지들이 만들어졌네요.
자기 관리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진취적으로 변창하는
모두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송수진 -

협회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모바일 버전도
함께 진행되어 무척 편해졌네요.
무엇보다 위원회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알 수 있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게
확연히 드러나니 회원들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일중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니 회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 김니경 -



제6회 코칭 학술대회

너와 나의 행복코칭 인간 중심 코칭연구

한국코치협회는 코칭 연구의 붐을 조성하고
코칭 실무와의 융합을 통해 코칭의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6회 코칭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 일자 : 2024년 9월 28 (토)

논문 접수 기간 : 7월 3일(수) ~ 8월 9일(금)

코칭분야 연구논문 발표
코칭 실무사례 발표
저명인사 특별 강연



코치톡”

CoachTALK



코치님, 고객 찾기 힘드시죠?
원하는 고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코치들의 대안, 코칭 플랫폼, 코치톡에서 고객을 소개해드립니다!
코칭스타일, 행동스타일, 에너지상태, 가치 등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코치를 **AI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찾아서 매칭해드립니다.

BEST Coach



코치를 위한 혜택

1. 나의 홍보를 대신해 준다
2. 코칭스케줄 관리가 편하다
3. 고객 소통과 관리가 편하다
4. 실행점검과 변화 관리가 효과적이다.
6. 고객분석을 시가 자동으로 해준다

- ✓ 베스트 코치로 활동!
- ✓ 효과적인 코치소개!
- ✓ 생생한 실행계획 플랜!
- ✓ 코치 영상, 세미나 등 고객모집 편리

- ✓ 코칭스타일 진단
- ✓ 행동스타일 진단
- ✓ 에너지 상태 진단
- ✓ 가치진단 등으로 고객분석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



제21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

THE 21TH KOREA
COACHING CONFESTIVAL

The 21th Korea Coaching Confestival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일시: 2024년 10월 10일 (목)

